

다산포럼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교사들이 많이 아프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인공지능을 다룬 책 두 권을 썼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2017)와 'AI 빅뱅: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2023). 시대적 관심을 끄는 주제다 보니 강연 요청이 잦다. 교사, 학부모, 학생, 행정가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수요도 꽤 된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니던가. 일자리의 미래 문제와 더불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다. 내 답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핵심 공통 역량을 길러줘야 대응할 수 있다. 핵심 공통 역량을 삶을 살아 가며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 역량이다. 흔히 언어를 도구 과목이라 부른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구라고 한다. 영어

입시와 교육 사이에서, 교사들이 아프다

를 모르면 영어로 쓰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영어를 알아야 한다. 도구로서의 언어의 특징이다. 핵심 공통 역량은 오늘날 필요한 언어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언어라 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자연어에 국한됐다. 자연어를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알 수 있었고, 그런 정보를 처리하고 종합해서 적용과 행동을 위한 지혜로 가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언어 이해와 활용 능력인 문해력(literacy)은 핵심 공통 역량이었다. 문제는 시대가 변해 자연어가 다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연어 속에 모든 지식과 기술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만, 오늘날의 언어는 자연어 외에도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등으로 확장됐다. 따라서 확장된 언어를 다루는 능력, 즉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해졌다. 인문학이 한동안 보여온 무력함과 공허함은 인문학의 핵심인 언어를 놓쳤다는 데서 왔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인문학은 언어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단, 이때의 언어는 확장된 언어여야 한다. 확장된 언어, 확장된 문해력, 확장된 인문학이다. 여기서 인문학은 교육, 그 중에서 핵심 공통 역량을 담당하는 단위다. 한국의 대학 초기에 있었던 '문리대학(文理大學)'의 교육 기능과도 비슷하다. 다만 교육 내용은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터이다. 확장된 인문학은 교양/전공의 이분법을 넘어 핵심

공통 역량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확장된 언어 교육 말이다. 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업 전환이 필요할 때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핵심 공통 역량을 어렸을 때 충분히 익혀야만 재교육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라도 역사를 보면 사라지는 직업과 생겨나는 직업 사이의 '과도기'가 항상 존재했다. 기초 공통 역량을 키워주면 과도기를 버틸 힘이 생긴다. 둘째, 전문가가 협업하는 융합 활동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융합 작업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전문 가끼리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이른바 문과와 이과의 언어가 너무 일찍 분리된 탓이다. 협업의 기초는 소통과 이해다. 핵심 공통 역량은 협업의 토대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모든 이가 대체로 동의한다. 동시에 물음이 쏟아진다. 현실에서 실행 가능할까요? 입시의 장벽이 높고 높기에 다들 쓴웃음을 짓고 만다. 사실 모든 교사가 꿈꾸는 것은 핵심 공통 역량을 길러주고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입시 앞에서 좌절된다. 오늘 날 입시는 교육과 모순이다. 시험은 1차 목표는 역량 향상과 이를 위한 평가다. 현재의 시험 문제가 역량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입시라는 현실과 교육의 꿈이 괴리될수록 교사들과 학생들은 더 아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NGO 칼럼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확대해야



박경훈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20년 경,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외국 국적 유아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지침에 따라 학비를 미 지원한다."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는 외교정책 및 국가 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다. 2021년 전북교육청이 유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거부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끄는 모습에 다행이면서도 씁쓸한 상황이었었는데, 아래 이주배경 청소년 사례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

까 걱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시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생인 1학년의 경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단,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 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광주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는 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

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흐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든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법무 당국과 논의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천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혁신적 포용교육)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 비전을 달성하고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상 가치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社說

광주시, '2015년 악몽' 재현 안된다

광주신세계 확장 계획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가 금호월드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신세계 신관 야외 주차장 부지 사이 폭 8m 짜리 도로를 존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현재 사유지로 광주신세계는 도로를 편입해 백화점과 이마트, 야외 주차장을 연결하는 확장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월 9000억 원을 들여 쇼핑을 물론 문화와 레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성 계획을 밝힌 후 1년 이상 행정 절차를 밟아오다 광주시의 느닷없는 제동에 허탈해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도로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도로 개설과 함께 4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계획까지 내놓았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금호월드 일부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광주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광주시민들은

2015년의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시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과 함께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는데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정치권까지 개입하자 막판에 광주시가 인허가를 포기한 아픈 기억이 있다. 신세계그룹은 광주 대신 대전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건립했고 이 시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확장안이 또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신세계그룹이 1조 3000억 원을 들여 어등산관광단지 추진하는 스타필드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22일 내년도 투자안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광주시의 불안정한 행정이 투자 철회라는 발미를 제공해선 안된다. 도로 편입에 반대만 하던 금호월드 상인들이 마침 광주신세계에 3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만큼 광주시는 잘 조율해서 2015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암 일가족 참변, 가족문화 되짚는 계기돼야

영암의 한 농가에서 50대 가장이 부인과 장에 아들 3명 등 4명을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3월 담양 '세모녀 사건', 5월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일가족 참사'가 빚어지자 일그러진 가족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암군 영암읍의 한 농가에서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장 A(59)씨와 아내 B(56)씨, 20대 자녀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가장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가족 살해'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에 의해 숨진 가족들은 평소 장에 때문에 사실상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숨진 20대 3명은 등록장애

이므로, 한 명은 거동을 못하는 상태이고, 2명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A씨가 '독립 생활'이 힘든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암 일가족 참변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가족문화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4억 원의 사기를 당한 후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담양 세모녀 사건'이나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조유나양 사건은 그뿐만 '가족주의'가 낳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아울러 생활고나 장애인 가족을 돌보다 지친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늘 요동벌에 다다라 이로부터 산해관까지 1200리 어간은 사면에 한 점 산도 볼 수 없고 하늘가와 땅같은 풀로 붙인 듯, 한 줄로 기운 듯 비바람 천만년이 이속에서 장망할 뿐이니..." 1780년(정조 4년) 음력 7월, 한 40대 조선 선비가 광활한 요동 벌판에 이르러 "한바탕 울만한 자리로구나!"라고 말했다. 만리장성을 지나면서는 벼루에 물 대신 술을 부어 먹을 간 후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노라"라고 썼다. 좁은 산하에 갇혀 책만 읽던 선비의 개안(開眼)을 연암박지원(1737-1805)의 기행기 '열하일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험가 김현국(55) (사)세계탐험문화연구소 대표는 '김탐'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는 20대이던 1996년부터 30여년 동안 유라시아대륙 횡단에 열정을 쏟아왔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소형 SUV '게스퍼'(998cc)를 몰고 여섯 번째 유라시아대륙 왕복 횡단(총거리 3만km)에 나선 김탐이 최근 SNS를 통해 성공 소식을 알렸다. 지난 5월 한국을 출발해 아시아인 하이웨이 6호선(AH

6)과 러시아 연방 고속도로, 유럽 도로를 따라 119일 만에 반환점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한 것이다. 귀로에 오른 그는 현재 독일 베를린을 거쳐 발칸 3국을 향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낙낙하지 않은 원정 경비를 아끼기 위해 '차박'을 하며 힘겹게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사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벼루에 물 대신 술을 부어 먹을 간 후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노라"라고 썼다. 좁은 산하에 갇혀 책만 읽던 선비의 개안(開眼)을 연암박지원(1737-1805)의 기행기 '열하일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험가 김현국(55) (사)세계탐험문화연구소 대표는 '김탐'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는 20대이던 1996년부터 30여년 동안 유라시아대륙 횡단에 열정을 쏟아왔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소형 SUV '게스퍼'(998cc)를 몰고 여섯 번째 유라시아대륙 왕복 횡단(총거리 3만km)에 나선 김탐이 최근 SNS를 통해 성공 소식을 알렸다. 지난 5월 한국을 출발해 아시아인 하이웨이 6호선(AH

탐험가 김현국

기고

전남대에서 만난 하이데거 친필 저서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

삶에서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필로소피아는 삶에 대해 사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욕망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 충돌하는 과정을 겪다보면 지혜는 정지되고 극한 상황의 경우에는 거의 무지에 가까워진다. 그런 무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혜를 익히고 싶어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공부하면서 근현대 철학과 문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니체의 사상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독일의 날을 맞이하여 은암미술관에서 개최한 2023년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 전시 'Turning Point'를 관람한 적이 있다. 이 때 김주연 참여 작가의 부친인 목포대 철학과 김정호 교수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공부한 철학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

의적인 시각과 기회주의 속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문학 연구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대학에 문학·사학·철학과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서울대 철학과는 박종홍 교수가 주도하게 된다.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를 방문하는 것은 박종홍 교수 개인으로서 고대하던 일이었다. 마침 하이데거의 제자인 하이델베르크대학 가다머 교수 밑에서 공부하던 전남대학교 서동익 교수가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은 1956년 7월 하이데거를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서 교수는 전남대를 떠나 중앙대학교로 옮긴 후 세상을 떠났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의 설득과 노력으로 가족들이 서 교수의 장서 3000여 권을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게 된다. 전남대 기증본 중에는 하이데거 저서인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친필 사인본이 들어 있었고, 그 내용은 성진기 교수가 1977년 출판저널 제207호에 발표한 '하이데거의 욕망 함집'이라는 글에 담겼다. 나는 세계적인 석학의 친필 서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다. 장우권 전남대 도서관장의 도움을 받아 박종홍 교수가 하이데거를 만나고 쓴 기행문과 친필 도서를 받아들 수 있었다. 사상계 1957년 10월호에 실린 박종홍 교수의 기행문 '하이데거를 찾아서'에는 전남대 서동익 교수, 서울대 의대 이문호 교수,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의 일행이 프라이부르크 슈바르츠발트 산장 토트나우베르크의 자그마한 오두막을 방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고서 도서관에서 찾아온 '존재와 시간' 1955년 판

에는 서동익 교수를 위해 하이데거 교수가 친필로 사인한 1956년 7월 27일 자료 서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뜨겁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세기 실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연 위대한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친필이 적힌 저서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의 친필 스토리를 지닌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전남대학교의 큰 자부심이니 특별히 보관하고 광주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에 특별하게 전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우권 도서관장은 올해 도서관 설립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특별 전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성진기 교수는 '세계에 던져진 존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탐구해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로서 하이데거의 '현존재' 사상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본래적 자기 모습을 망각하고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이분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현존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의 여정을 갖는다. 당시에 하이데거 오두막을 방문했던 사람 가운데 강신호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고인이 되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친필이 적힌 '존재와 시간'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영원히 남아 후학들에게 많은 철학적 사유와 행동을 전해 줄 것으로 믿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政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